

「'95정보통신업체 임직원 연찬회」분임토의 “회선문제 해소, I-CPS 공동사용 허락해야”

“95정보통신업체 임직원 연찬회”에서 분임토의가 실시되었다. 하드웨어 등 6개분과에는 각각 관련업체에서 참석, 현업에서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도출해냈다. 다음은 각 분과위 리포트 요약이다. <편집자 주>

하드웨어 분과

<국내 외 현황과 전망>

- 정보통신 기술개발 경쟁의 가속화
- 정보통신의 멀티미디어화의 급진전
- 방송·통신·컴퓨터의 융합
- HW, SW, 통신의 상호결합
- End to End 서비스의 보급확대
- 국내 정보통신, 특히 HW분야 국제 경쟁력 보유

<사업추진상의 애로사항>

- 체계적인 정부정책 부족
- 각 부처간 단편적, 단기적 정책추진
- 수요부족에 따른 기술개발 투자의욕 감소
-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구축 절실
- 중소 HW업체의 기술개발 촉진 정책 부족

<대정부 건의사항>

-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범정부적인 정보통신정책 필요
-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범정부적인 정보통신정책 필요
- HW, SW, 통신의 상호연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

- 공급측면의 정책 못지않게 수요측면의 정책
- 정보통신의 보급·확산을 위한 법·제도 개선필요

PC통신 분과

<국내·외 현황과 전망>

- 삼성, 현대 등 대기업의 참여와 언론사의 진출 (현재 기존 사업자가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격심한 경쟁상황 직면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만이 생존하고 사업영역은 확산됨)
- 마이크로소프트네트워크(MSN), Internet의 활성화 예상

<사업추진상의 애로사항>

- 망간 연동 문제
- Contents개발에 중복 투자
- 출혈적인 요금 경쟁(변동비도 보전 못하는 수준)

<대정부 건의사항>

- MSN진출에 따른 발생가능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
- 014XY 이용하는 PC통신사업자에 대한 정산요금 개선
- 불량이용자에 대한 공동관리 상설체계 확립 필요

멀티미디어분과

<국내·외 현황과 전망>

현황

- LAN사용률 : 35% 정도(국내)
- LAN장비 및 SW 외제품(국내)

	현	황	전	망
Content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입자에게 친밀성 부족 ○ Kiosk형태(상품카탈로그 및 사양의 CD화로 표현) ○ 창조력개발 노력중(교육, 영화, 영상)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망의 성능강화로 Content 공유 ○ 영상 및 시나리오의 인간화, 창조성이 핵심기술(여성감성 적극 활용) ○ 하이퍼텍스트+M&M+3차원화 	
Platform	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PC와 TV의 두가지 HW기반으로 발전 ○ Kiosk 형태 	○ SW 기능강화로 단말의 단순화	
	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멀티미디어 활성화의 가장 큰 벽 · 회선품질 저조 · 고가격, 구하기 어려움(T3의 보편화 필요, Y+2) · 전화망 위주 활성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화선위주서 광케이블, 무선이용확대 ○ 경쟁에 입각한 가입자선택 다양성 보장 ○ 망의 유연성 보장 	
서비스	○ 서비스를 만족시킬만한 법규, 환경, 관념의 미성숙		○ 인간화로 접근	

<사업추진상의 애로>

- 기간사업자 및 기득권사업자
 - 투자비 과다로 다양성 추구 어려움
 - 공적 개념투자로 원가산출 어려움
 - 설치 계획의 탄력 적용 불가
- 응용 및 후발사업자
 - 사용료 고가 및 사용범위 현재
 - 사용매체의 다양성 부족

<대정부 건의사항>

- Content분야 : 창조력 개발 환경 마련
- Platform분야 : 회선문제를 획기적 해결 요망
 - 능력있는 업체에 적극 개방
 - 골라서 싸게 쓸 수 있는 환경요망

LAN분과

<국내·외 현황과 전망>

- 정보통신응용에 대해 무관심(국내)
 - ATM LAN으로 표준화 및 변화시도(외국)
 - 초고속 응용SW 개발에 전력(외국)
- #### 전망

- 무선LAN분야 기술개발 및 도입
- ATM LAN 시대
- 초고속정보통신의 밑거름
- 윈도우95같은 응용SW 개발이 세계주도
- Internet용 접속 및 검색 SW경쟁
-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세계와 하나로

<사업추진상의 애로사항>

- #### 절차상
- 경영층의 정보통신에 대한 의식결여
 - 정보통신 전문인력 절대부족
 - LAN구축에 대한 자신감 결여
 - LAN 시스템 라이프사이클의 짧음

기술상

- LAN구축시 문제점 도출의 어려움(기술공개)

시급)

- LAN 사용자의 LAN구축 감독지식 부족
- LAN 응용 SW 디버깅 능력결여

<대정부 건의사항>

- LAN 및 인터넷관련 통신, 응용SW개발 지원
- 국내 LAN사용 활성화 방안강구
- 정보통신부의 활발한 LAN추진정책 추진
- 정부기관의 정보DB화

VAN분과

- VAN사업에 대해 수년에 걸쳐 동일한 문제에 대해 건의가 있었으나 그 실효성이 적었음.

<시급히 개선할 문제>

- 전용회선 제도
 - VAN사업자를 일반사용자와 동일하게 취급 : 회선재입대 사업의 원가부담이 더 높아져 사업의 수익성 현저히 저하(별도의 요금제도 필요 - Volume Discount)
 - 고속회선의 활성화를 위한 요금제도의 부재
 - 회선의 적시공급, 일정수준 회선제공 보증
- 상호접속
 - 014XY제도 : IPCS 공동이용, 014XY 접속회선의 사용절차 개선 및 접속 범위 확대
 - 상호 접속 기준 : 데이터망간 상호접속 비용을 우선 50 : 50 균등 부담
- 규제완화 : 공전접속허용
- 우월적 지원 남용 시정
 - 700서비스 분야 : 음성사서함 서비스 규제 완화 필요
 - 무역자동화 사업분야 : 지정사업자 제도 폐지, 관세청 접속보장
 - 과금제도개선 : 기간사업자 위주로 정해진 과금제도 개선 필요

<건의사항>

- 양사업자간 정례미팅 개최 : 기간사업자(KT 등) 경영진과 VAN사업자간의 비공식적 미팅 필요
- 통신위원회 활성화
- 통신사업자들의 건의 또는 애로사항을 제도적으로 수렴

SI 분과

<국내·외현황과 전망>

- 노하우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30대 기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그룹이 SI업체로서등록후활동
- 해외기업들의 한국내의 장비공급.

<사업추진상의 애로사항>

- SI 인력의 절대적인 부족현상
- 과기처의 용역단가외에 현실적인 용역단가가 없어 소요인원의 조정등 편법을 쓰고 있음.
- 장비의 해외의존도 심각 : 국산화 필요(개발 재산성 부족-정부보조 필요)

<대정부 건의사항>

- 정부차원의 인재육성안 필요 : 교육센터의 설립(정보문화센터, KAIST, SERI, 기업부설 교육센터 활용)
- 정보산업에 대한 용역단가기준 마련
- SI업체 육성방안 및 기준의 설립
- 정부 입찰시 턴키방식 수주 가능하도록 배려
- 통신등 각 분야에 걸친 정부주도의 표준화
- 과기처가 주관하는 기능사/기사/기술사의 시험과목과 합격자수를 정보통신부가 담당
- 대학의 전산/컴퓨터/정보과학분야 커리큘럼 변경 5년주기를 유연하게 실시